

한-프랑스 시인협회 간 상호협력협약 체결 이후, 프랑스 내에 한국 문화와 문학 관련 내용 등이 소개되는 등 관련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는 양국 시인협회 간 상호협력 협약을 축하하고 양측 시인들의 문화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했다. 동 체결식에는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유자효 한국시인협회장, 장-샤를 도르즈 프랑스시인협회장 등 한·불 양국 문화/정재계 초대 인사, 현지 교민 등 124명이 참석했다.

한·불 시인협회는 양국 시 작품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여 정기 간행지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류 열풍 속 K-pop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프랑스 권 국가들에 한국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시인협회의 사화집인 『시와 종교』를 통해 프랑스시인협회의 2021년 시 콩쿠르 대상 수상작(『이름으로(Au Nom)』, 이렌 제냉 무안 作) 등을 소개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시인협회 정기간행지인 《L'Agora》와 《Florilège》를 통해 한국 시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한영숙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글)

## 특집Ⅲ\_ 프랑스 시인들의 시

한국시인협회는 프랑스시인협회와의  
상호협력협약에 따라  
《한국시인》 2024년 상반기호에  
프랑스 시 26편을 한국어로 번역, 게재합니다.

**번역 : 김진하 서울대 교수**

## L'AMI DU VOYAGE

Jean-Charles DORGE

Nous avons, cœurs en fête, entrepris un voyage ;  
C'était encore hier, à peine rencontrés.  
Une voix nous souffla : « Tous deux, vous partirez  
Ensemble partager l'émoi d'un long sillage... ».

L'amitié nous porta vers l'inconnu rivage,  
Sur des flots incertains maintes fois chavirés.  
Si nous voguions parfois, opposant nos beauprés,  
Au port se retrouvaient nos mâts au fil de l'âge.

Nos vies s'entrecroisaient aux sources de l'humain  
Se guettant l'une l'autre à l'angle d'un chemin  
Pour s'offrir tour à tour le miroir de soi-même.

Puis, un funeste jour, il ne resta qu'un seul...  
Mais l'esprit de jadis lui dit : « Ton ami t'aime  
Maintenant comme avant. Ignore le linceul ! »

## 여행 친구(L'AMI DU VOYAGE)

장-샤를 도르즈(Jean-Charles DORGE)

둘이 만난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우리는 축제의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네.  
한목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였지, “너희 둘은 떠나라  
긴 항로의 설렘을 함께 나눠라...”

우정은 우리를 미지의 해안으로  
수없이 뒤집히는 불확실한 파도 위로 실어갔고  
가끔씩은 서로 뱃머리를 거슬러 향해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항구에는 우리들의 돛대가 다시 돌아와 있었네.

인간적인 삶의 근원에서 뒤엎히는 우리들의 인생  
길모퉁이에서 서로를 엿보기도 하다가  
차례로 자신의 거울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어느 운명의 날, 한 사람만 남게 되었네...  
그런데 옛 정령이 그에게 말해 주네, “친구는 너를 사랑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죽음의 수의는 무시하라!”고.

## 춤추는 뮤즈(La muse dansante)

장-샤를 도르즈(Jean-Charles DORGE)

흐릿한 달빛과 당당한 하늘빛에  
내 영혼 안에서 바람이 쓰다듬으며 웅얼거릴 때  
어떤 여인의 우울한 목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입술엔 미소가 서렸고, 두 눈은 어린아이 같다.

과거가 남아 있었기에 나는 그렇지 하고 알아보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나아가고, 처음 봤을 때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참을 수가 없다...  
아하! 그녀의 실루엣은 바위 덩어리일 뿐이었다!

여전히 그녀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꽃 같다.  
내게는 금지된 어느 다른 곳의 향기를 품은.  
그 모습이 지닌 음악 같은 술기운에 나는 취한다.  
그리고는 무언의 강물에서 죽도록 눈물 흘린다.

그녀는 운명을 유혹하려는 생각이었음을 알겠다  
운명은 그녀의 춤에 지배되는 우아하고 가냘픈 새이기에...  
행복에 가닿을 때마다 그녀는 도취하여 달아나 버리곤 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그녀는 알까?

영원의 공간에서 길 잃은 파도에서  
침묵하는 정신과 생명 없는 한숨에서

터널 끝까지 도달한 바람의 힘에서 그녀는 들으리  
언제나 그녀를 쫓아다닌 나의 말들을

장-샤를 도르즈(Jean-Charles DORGE)



1954년 파리(Paris) 출생. 시 전문지 《시의 순찰대(La Ronde Poétique)》 창간(1983). 저널 《프로메테우스(Prométhée)》 편집장. 프랑스시인협회 주관, 폴 베르렌 콩쿠르(Prix Paul Verlaine 2015) 등 다수의 시 부문 콩쿠르에서 우수상 및 대상 수상. 프랑스어권 작가-시인협회 회장 및 프랑스시인협회 회장(2024 현재). 시집 『별이 빛나는 길(Les chemins étoilés)』 외 다수.

새벽안개 속에서(Dans les brumes d'aurore)

미셸 베나르(Michel BENARD)

금박 입힌 성녀상들 세워진  
새벽안개 속에서 마주쳤네  
야생의 대지에  
전설 속 나무 한 그루  
푸른 빛 장식으로  
천상의 불꽃을 건디는  
태초의 아름다움  
인디고청색 꿈으로 수놓은  
어느 하늘의 비단들을  
잔가지로 쓰다듬고 있었네

미셸 베나르(Michel BENARD)



1946년 프랑스 랭스(Reims) 출생. 시인, 화가, 수필가, 예술 및 문학평론가. 프랑스 아카데미(Académie française) 콩쿠르 수상(2002). 프랑스 정부 예술-문화 훈장 수훈자. 장 콕토(Jean COCTEAU) 콩쿠르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시 부문 콩쿠르 수상. 현 프랑스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하늘의 어루만짐(Les caresses du ciel)』 외 다수.

자연은 문이다... (La Nature est la Porte...)

베로니크 프라바-피오(Véronique FLABAT-PIOT)

자연은 지식을 향해 열린 문이다.  
우리의 존재를 가르치고 마음도 가르친다.  
작은 것들을 공들여 손질하고 걸모습은 내버린다.  
그 우주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

자연은 세상의 풍요의 저장소다.  
살아있는 자를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이 되어  
진정한 의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배반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줄 안다.

작은 숲 사이로 흐르는 샘물이나  
구름이 달래 주는 창공을 바라보면서  
영원은 은혜의 씨앗을 뿌리며 당당해진다.

왜냐면 죽음이 낳는 못 민을 결과들을  
계절이 바뀌며 끈기 있게 지워 버릴 때  
행복은 우리 안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니까.

베로니크 프라바-피오(Véronique FLABAT-PIOT)



벨기에 출생. 1990년 시 입문. 프랑스 정부 예술-문화 훈장 수훈자. 국제적 시콩쿠르 심사위원 및 강연 활동. 다수의 시 부문 콩쿠르 수상. 프랑스 시인-예술인 협회 부회장 역임. 현 프랑스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기슴으로 말해줘요(Dites-le avec le Cœur)』 외 다수.

글의 경계(Frontières de l'écrit)

엘리안 위르타도(Éliane HURTADO)

보이지 않는 시간의 패종시계 아래서  
나는 걸어가고 또 글을 쓴다.

단어들의 길에는 장벽이 없다  
하루의 괴로움에 대해  
과거의 추억들  
그 다음날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떠돌게 놔두자  
햇살과 비 사이에서  
낮과 밤 사이에서  
하나하나의 글자가  
새벽이슬처럼  
방울져 떨어지도록

엘리안 위르타도 (Éliane HURTADO)



프랑스 파리(Paris) 출생. 시인, 화가, 고화 복원 기능자. 다수의 문학 저널 및 작품선집 출판 협업. 다수의 미술 콩쿠르 수상. 이태리 TREVISO 콩쿠르 시 부문 수상(2014). 현 프랑스시인협회 사무총장. 시집 『구름걸이(L'accroche nuages)』(2017).

단가短歌 원무(La ronde des Tankas)

이자벨 자스민(Isabelle JASMIN)

밤의 미술~  
시간의 색깔들  
오렌지 색, 계피 색, 꿀 색이  
    단힌 문틈으로 들어오고  
    미래의 향기를 내뿜는다  
        봄의 순간들  
        너희는 영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바람은 불어온다  
        계절들이 이어진다  
        추억으로 붉어져

여름 폭우가  
혈관이 부풀어 오른 대지의  
목마름을 달래 주었다  
    일곱 빛깔 손수건이  
    평화의 향기를 뿌린다  
        나무는 방울방울  
        풀밭을 물들인다 황금빛으로  
        ~ 놀랍구나  
        여름이 눈물을 쏟았더니  
        과부가 한결 곱다

\* 단가短歌는 일본의 전통시로 5·7·5·7·7의 운율을 지닌 5행 31음절의 시 형식이다. 시인은 프랑스어로 이 운율을 맞추어 시를 지었다.



이자벨 자스민(Isabelle JASMIN)

프랑스 파리(Paris) 출생. Carnac, Bondy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 시동우회 '천사들의 저녁잔치(la Veillée des Anges)' 회장. 프랑스시인협회 '시 쓰기 모임' 담당 책임자. 2016년부터 불어권 작가 예술인 협회 기관지 《Florilège》에 다수의 시 게재.

## 무의식(Les Inconscients)

제라르 올리비에(Gérard OLIVIER)

무의식적인 것들이 새들을 울렸고  
지구의 옷을 벗겨 내어  
거친 축제로 옷을 입힌다  
죽은 숨털과 서글픈 피부로.

이제 새로운 날은 없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추억은  
무의식적인 것들이 새들을 울렸고  
지구의 옷을 벗겨 냈다.

이제 남은 건 황량한 숲의 증인,  
눈물 흘리며 고개 떨구는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왜냐면 부드러운 시냇물 속에서  
무의식이 새들을 울렸으므로.



제라르 올리비에(Gérard OLIVIER)

파리(Paris) 출생. 문학, 영화 및 방송분야 활약. 프랑스 시인-예술인 협회 주관, 빅토르 위고 콩쿠르(Prix Victor Hugo 2018) 수상 및 불어권 작가 예술인 협회 콩쿠르 금상 수상(2022). 시집 『긴 시간(Long est le Temps)』의 소설 및 시집 다수.

## 늙는다는 것(Vieillir)

마크 니외브자에르(Marc NIEUWJAER)

나는 가끔 내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다  
몸의 괴로움에서 멀리 떨어져 쉬고 싶고  
하루 저녁은 잊고 싶다, 수많은 몸의 방향들을  
그 지옥 같은 소용돌이와 모든 불길한 운명들을.

나는 육신의 사소한 죽음들에 흔들린다.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 숨결을 어지럽힌다.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갖가지 의지할 거리를 만들어 내며  
어쩔 수 없이 너무도 불편하게 살아가게 된다.

어느 지평선 위에서나 늙는다는 건 배가 침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재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패를  
제 뒤편으로 내놓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장 운 좋은 모습으로 떠나기에 앞서  
마음 한복판에서 다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경쾌하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마크 니외브자에르(Marc NIEUWJAER)

1952년 출생. 시골 의사 정년 후, 장애인 노인 영양원 총괄 의사로 활약 중. 사회정의 및 여성인권 옹호자. 소설 『썩기풀 사이길(Un chemin au milieu des orties)』 출판. 프랑스시인협회 및 불어권 작가-시인협회 발간 시집에 다수 시 게재. 시집 준비 중.

## 식당 앞에서...(Devant le restaurant...)

니콜 랑동(Nicole RANDON)

식당 앞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거칠게 다툰다  
소리 지르고 치고받는다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던 손님들이  
모두 입을 다문다 놀라서  
포크를 쥔 채  
움직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진실하다  
그건 연극도 영화도 아니다  
그냥 인생

그들의 진짜 인생  
진짜 인생

그들의 진짜 인생이 소리 지르고 있다



니콜 랑동(Nicole RANDON)

현대문학 교수 자격증 취득. 파리 명문 앙리4세 고교(Lycée Henri IV) 교사 역임. 시 글방 '시-나의 시상(La Poésie-Ma Muse)' 운영. 프랑스시인협회 월요 시인 모임(Lundi des Poètes) 주관. 시집 『지름길(Chemins de traverse)』 외 다수.

별이여, 돌아오라!(Reviens, l'Étoile !)

니콜 포르테(Nicole PORTAY)

별이여, 돌아오라!  
 세상의 아이들이  
 너를 부른다!  
 너의 빛으로  
 하얀 새를 환히 밝혀주어라.  
 갈라진 조화의 나뭇가지는  
 불화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내 나무의 뿌리들은  
 하늘을 향해 끝을 세운다  
 공포의 정점에서  
 괴롭힘 당하는 우리 땅에서.  
 돌아오라  
 아름다운 희망의 별이여!  
 화합  
 평화  
 사랑  
 이런 단어들이 망각된 시각에  
 새벽빛을 깨워 다오!

니콜 포르테(Nicole PORTAY)



프랑스시인협회 Rhône 지역 대표. 프랑스시인협회 불어권 국제 청소년 시 콩쿠르 담당 책임자. 베르렌 상 수상(Prix Verlaine 2016). 프랑스시인협회 초대 회장 상-오귀스트 도르쥬 상(Prix Auguste Dorchain 2022). 시집 『Entre rêve et réalité, le reflet du silence』 외 다수.

## 프랑스시인협회 2022 시 콩쿠르 수상 작품(상)

Société des Poètes Français

Concours de Poésie 2022

번역 : 황의조 흥익대 초빙교수